

자연스럽고 소박한 삶의 비밀

원제 《대지에서의 삶(living on the earth)》
 저자 알리샤 베이 로렐(alicia bay laurel)
 출판사 Villard Books

번역판 | 번역가

바이흐로 잘 먹고 잘 살자는 '참살이', '웰빙'의 시대다. 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걸 따질 만큼 삶이 여유로워졌던가 하는 어리둥절한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뿌리를 튼다.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인간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바람에 자초한 재앙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보니 이제라도 '체대로' 살아보겠다는 노력을 살뜰히 여겨야 할 듯도 싶다. 광우병이며, 지구 온난화 현상이며, 이 름도 낯설기 짝이 없는 아토피성 피부병이 그러하지 않은가.

최근 몇 년 들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우리의 '참살이' 열풍과 달리, 이미 오래 전부터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꿈꾸고 실천했던 이들이 지구상에 존재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책 역시 1970년, 당시 21살의 나이로 캘리포니아에서 소박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저자의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염원을 담아 처음 선을 보였고, 자연을 벗 삼아 공동체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고자 했던 젊은이들에게 지난 30년간 성경처럼 떠받들어졌다고 한다. 자연을 파괴하는 수많은 산업 소비재의 사용을 자제하고 자연의 섭리와 대지의 리듬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간다면, 타인을 압박하고 구속하는 일 없이 좀더 평화롭고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책의 메시지가 한 세대를 훌쩍 넘은 지금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여전히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지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저자가 손수 쓴 원고와 그림을 담아 재생지로 만들어진 소박한 책엔 그러한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색채를 담아 책의 전면에 노골적으로 표출되어 있지 않다. 이 책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숨 가쁘게 돌아가는 도시에서, 빌딩 숲 사이에서, 책상에 앉아 월급봉투를 고

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보다는, 산이나 들에서 나무를 베고 푸성귀를 기르며 지내는 삶이 더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한 삶의 지침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먹을거리부터 입을거리, 주거, 취미, 농사, 예술,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마 이 책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인생의 단면은 없을 거라 여겨질 만큼 다양하고 세세한 내용 덕분에, 어디든 주어진 공간과 마음의 여유와 의지, 함께 할 동료만 있다면 이 책 한 권만 달랑 들고 떠나 당장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만 같다.

책은 자연에서 최대한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며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다. 이를 놀라움의 시선으로 읽어가다 보면 자연과 소박한 삶에 대한 외경과 그리움이 새록새록 돌아오고, '과연 나는 이런 삶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도 슬며시 끼어든다. 이미 안락한 도시의 삶이 체화된 때문인지 세상을 초탈한 듯 벌거벗은 채로도 스스로 없고 자유롭기만 한 인간의 모습과 노동에 대한 끊임없는 부담감, 불편한 주거환경 및 가난에 대한 불만과 아울러 공동체의 삶에서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개인 공간 등에 대한 염려가 감지되는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든 작은 땅뽕기를 찾아 당근 씨를 심는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자라나는 싹을 지켜본다. 당근이 다 자라고 나면 뽑아서 먹는다"고 간단히 소개된 <잠시 숨을 돌리고 느낌의 미학을 음미하는 법>이라든지, 해와 달의 뜨고 짐에 대한 소박한 단상은 인간미 넘쳤던 과거와 자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해일처럼 밀려드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대체 무엇을 습득해야 할 것인지 정신없이 달리다, 잠시 발밑에 핀 들꽃을 감상하듯 숨을 돌리고 쉬어 가는 의미로 음미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한가로운 삶의 단면들이 무수히 담긴 책이기에. **한**



은퇴견과 최후의 파트너

제목 《최후의 파트너_은퇴한 안내견들》
 저자 니시다이키라 니시다이유키
 출판사 겐토샤

김지효 | 번역가

“새해가 밝았는데 루이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루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마음껏 먹도록 해 주십시오.’ 수의사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숙연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루이’는 은퇴한 안내견이고, ‘우리’는 이 책의 저자, 그러니까 은퇴견 자원봉사자이다. ‘우리’는 그렇게 루이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슬픈 이별에 한동안 괴로워했다. 같이 했던 시간은 겨우 이삼 년 정도로 무척 짧았지만, 우리는 루이를 저 세상에 보내고 나서도 루이를 잊지 못했다. 아니, 루이만 그랬던 게 아니다. 그 전에 한가족이 되어 살았던 지르, 도리를 보냈을 때도 루이 때와 똑같았다. 한없이 슬픈 이별이었다.

은퇴견 자원봉사는 일의 성격상 더욱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은퇴견의 미래가 너무 훤히 내다보이니 말이다. 아무리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네 가지 고통 중 세 가지를 고스란히 지켜봐야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봉사자 자신도 똑같이 맞이하게 될 생의 마지막 순간을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껴야 한다.

안내견은 어려서는 퍼피워커Puppy Walker 손에서 자라고, 성장해서는 시각장애인의 두 눈이 되어주고, 늙어서는 은퇴견 자원봉사자의 품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 은퇴견 입장에서 보면 은퇴견 자원봉사자는 생의 마지막 가족이자 파트너인 셈이다.

이 책은 13년 동안 은퇴견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온 저자와 그가 지켜

주었던 은퇴견의 일상을 그린 책이다. 은퇴견이 다른 보통 개들처럼 산보도 하고, 뜰에서 놀기도 하고, 자원봉사자의 뒤를 따라다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상들이 사진과 글 속에 잔잔히 녹아 있는데, 늘 긴장하고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은퇴견이 이제야 마음 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보는 쪽 마음까지 편해진다. 또 첫 만남부터 일상생활, 그리고 늙어가는 과정과 이별의 순간까지, 자원봉사자와 은퇴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세히 묘사되어 있어 그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원봉사자와 은퇴견의 이야기는 둘 사이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시각장애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더욱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나와 다른 이웃을 배척하지 않고 끌어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그들은 이 책을 통해 담담하게 말하고 있다.

그냥 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두 눈이 되어 자신을 헌신하다가 마침내 은퇴하게 되는 안내견. 그리고 이제는 은퇴견이 된 그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자원봉사자. 지금까지 세상은 이들 은퇴견과 은퇴견 자원봉사자보다는 현재 활약중인 안내견과 사용자(시각장애인), 그리고 일반가정에 위탁된 강아지Puppy와 그를 돌보는 퍼피워커Puppy Walker 쪽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다.

앞으로는 관심의 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임무를 훌륭히 마치고 물러난 은퇴견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주자. 그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믿음과 인내와 헌신으로 자신을 송두리째 바쳤다. 자신의 주인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안겨다 주었다. 아울러 은퇴견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이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는 자원봉사자의 존재도 기억하자. 이처럼 고귀하고 슬프고 고통스런 경험을 해야 하는 자원봉사가 어디 흔하랴. ☹️



신神이라는 피조물의 가면을 벗기다

제목 《무신학 개론(無神學 概論) traite d'atheologie》
저자 미셸 옹프레 Michel Onfray
출판사 그라세 Gresset

조정훈 | 번역가

최근 《원숭이는 왜 철학 교사가 될 수 없을까》(원제는 '反 철학교과서')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미셸 옹프레는 프랑스에서도 화제를 몰고 다니는 철학자다. 스스로를 '유물론자', '쾌락주의자', '니체 좌파', '아나키스트'라 부르는 그는 매년 책 한 권씩을 낼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으며 도발적인 문제 제기로 논쟁의 중심에 서곤 했다. 그런 명성에 걸맞게 그는 올해 벽두부터 '무신론'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와 논쟁의 판을 벌여 놓았다. 오늘 소개하려는 책이 바로 2005년 옹프레가 철학적 화두로 들고 나온 《무신학 개론(traite d'atheologie)》이다. '무신론atheism' 대신 사전에 없는 '무신학atheoloie'이라 이름 붙인 것은 오랜 학문인 신학theoloie의 대척점에 '무신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지은이의 각오로 읽혀진다.

이 책의 논의 대상에는 3대 유일신 종교라 부르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포함된다. 책에 따르면 3대 유일신 종교는 시대와 율법을 달리함에 도 같은 배경과 동일한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뿌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증오'다. 어떤 증오인가?

먼저 이성과 지식에 대한 증오다. 신에 대한 복종을 근간으로 하는 유일신교는 인간의 호기심을 억누르고 이성과 지식에 대한 증오를 퍼뜨렸다. 다음으로 유일신교는 인간의 삶에 대한 증오심을 퍼뜨렸다. 죽음 너머의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을 삶보다는 죽음에 귀의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이들 종교는 현세에 대한 증오를 퍼뜨렸다. 세상 저편에 신이 주관하는 땅이 있다고 주장하며 현세를 눈물과 고통의 땅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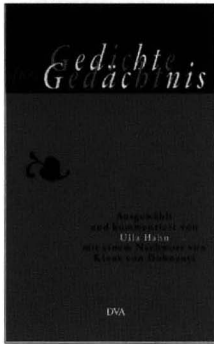
다음은 육체에 대한 증오다. 육체는 영혼의 껍데기일 뿐이며, 따라서 육

체로 느낄 수 있는 쾌락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일신교는 여성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성은 방탕한 성과 죄악에 쉽게 굴복하는 악마의 육신을 지녔다. 특히 여성에 대한 증오와 반 육체의 사상은 세 종교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통의 원형(archetype)들이다.

또 다른 작업으로 옹프레는 종교의 날조된 신화가 어떻게 구성되고 세워졌으며 퍼져나갔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여기서 지은이가 분석의 샘플로 삼은 것은 기독교다. 예수의 신화는 역사 속에서 불과 한두 세기 동안 눈에 보이게 이루어졌다. 천년 왕국의 종말론과 선지자들, 묵시록 신앙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맞춰 등장한 예수는 당시의 집단 히스테리를 흡수할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신화적 허구와 신앙의 뼈대를 덧붙여 예수라는 인물을 창작해 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니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옹프레는 사도 바울을 기독교 신화의 실질적인 창시자로 지목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본래 의도나 실제 행적과 관계없이 지어낸 이야기를 통해 민중들의 열등감과 자기 혐오를 박해받는 자의 마조히스트적 희열로 승화시킴으로써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것이다. 옹프레는 객관적 물증과 역사적 사실들을 무기로 하고, 이들 종교들이 스스로 내포한 모순과 부조리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종교라는 허구의 실체를 거침없이 드러낸다. 전쟁, 테러, 마녀사냥, 종교재판, 십자군, 식민주의, 인종청소 등등 그의 자료 속에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죄악은 너무나 많다.

누구는 항변할지 모르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과거이고 종교는 점점 그 세력과 의미를 잃어 가지 않느냐고? 하지만 옹프레는 반박한다. 세상은 아직 오랜 종교의 주술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따지고 보면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 민족분쟁들이 크건 작건 종교문제가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성, 인종, 가족, 결혼, 동성애, 낙태, 직업관 등 우리 인간의 관념들의 많은 부분이 옛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



‘안으로 새겨 읽어보는’ 독일시 100편

원제 《기억을 위한 시 Gedichte fürs Gedächtnis》

저자 올라 한 Ulla Hahn

출판사 Deutsche Verlags-Anstalt

김제혁 | 시인, 번역문학가, 고려대 독문학과 교수

요즘 노래방을 보면 대학시절 드럼통이나 타일을 붙여 만든 둥그런 막걸리 식탁에 둘러앉아 김치 안주 하나 달랑 놓고서 친구들과 함께 손가락 젓가락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간혹 민요조의 노래를 구성지게 잘 뽑는 친구가 있어 옆자리의 아저씨가 빈대떡이나 과전 안주를 시켜 주는 황재를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젠 한 가지 노래도 노래방 기계의 도움 없이 끝까지 부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우리의 암기력은 모두 노래방 기계의 노예가 되면서 슬금슬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쇠약해진 우리의 기억력을 향해 ‘어서 부활하라’고 외치는 책이 있다. 독일의 여류시인 올라 한이 중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려 뽑은 100편의 독일시 선집 《기억을 위한 시 Gedichte fürs Gedächtnis》가 바로 그것이다. 문자의 발명 이전, 인간의 감정과 지식의 전달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암송과 그것을 빌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귀에 익숙해 지곤 하던 장르가 바로 운문이다. 운문에 들어 있는 암운이나 리듬은 기억을 돕던 암송의 흔적들이다. 올라 한은 이 시들을 “안으로 새겨 읽기” 방식으로 읽어보라고, 다시 말해 가슴으로 읽어보라고 권한다. 그녀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암송이다. 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이 독자의 가슴에 와서 촉촉하게 젖도록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를 마음의 눈으로 읽을 때 시는 우리를 명상으로 이끌어 생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이 시집은 집안의 서가에 꽂아놓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서가에 꽂아놓아야 한다.

그뤼피우스의 〈만사가 허무로다〉, 클라우디우스의 〈저녁 노래〉, 괴테의 〈들장미〉, 실러의 〈장갑〉, 아이헨도르프의 〈달밤〉, 하이네의 〈로렐라이〉, 뢰링의 〈반평생〉, 릴케의 〈표범〉, 벤의 〈과꽃〉, 쉘란의 〈죽음의 푸가〉 등 그야말로 독일 서정시의 한 봉우리씩을 차지하는 시인들의 주옥같은 시편들이 한 페이지씩을 장식하고, 시인과 시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결한 해설이 곁들여 있는 이 책은 시를 음미하고 가슴 속에 간직하기에는 더없이 적격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독일어를 아는 독자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지만, 그럼에도 독일 내에서 단시일에 10쇄가 넘는 판매부수를 기록한 이 책의 시들 중에서 중세의 사랑시를 크게 한번 읊으면 사랑과 믿음을 찾아 모험을 떠나던 중세 기사들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아니면 우리의 아름다운 시를 크게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김제혁**